

# 주간 해외에너지정책 동향

Issue 42 / 2009.11.6

## □ CCS 기술개발 관련 정부 인센티브 지원촉구

○ GCCSI(Global Carbon Capture and Storage Institute)는 CCS 기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산업계 및 지역사회와 파트너십을 통해 CCS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

- 이같은 조치를 위해 관련 법률제정을 통하여 탄소포집·저장(CCS) 시설설치에 대한 인센티브의 확립이 필요.

- 지금까지는 실행가능한 상업적 규모의 통합프로젝트가 없었으며, 향후 발전소의 CCS 관련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정부 보조가 필요하다고 주장.

- 현재 세계적으로 석탄, 가스, 석유에 대한 213개의 CCS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지만, 단지 7개의 천연가스 생산플랜트에서만 운영 중임.

○ 전문가에 따르면 CCS 개발에는 시간과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석유산업과 같이 CCS 산업도 장기간의 발전과정이 필요함.

- 세계 최대 석탄수출국이자 석탄이 발전원의 약 80%를 차지하는 호주는 2~4개의 상업적 규모 CCS 프로젝트 개발에 향후 9년 동안 \$24억을 투자할 계획임.

※ GCCSI: 호주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미국, 영국, 일본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음.

(Reuters, 2009.10.28)

## NEWS

- CCS 기술개발 관련 정부 인센티브 지원 촉구
- 인도네시아, '20년까지 온실가스 '05년 대비 7% 감축목표 제시
- 일본 환경성, '10년에 2조 엔 규모 환경세 도입 추진
- 일본, '08년 CO<sub>2</sub> 배출량 6.7% 감소
- 일본 미츠이은행, 도쿄제철 CO<sub>2</sub> 감축사업에 용자 지원
- 훗카이도전력, 온천열 이용 국내 CO<sub>2</sub> 크레딧 획득
- 일본 UN 기후변화 예비회담서 개도국 지원금 통합 제안
- 중국 '09년 GDP당 에너지소비 전년 대비 5% 개선 전망
- 중국 CNPC, 신장(新疆) 유전개발에 2,000억 위안 투자
- 미국, '10년 에너지 및 수자원 예산안 발효
- 볼리비아, 우루과이 연결 가스관 건설사업에 \$30억 투자계획
- 볼리비아, '10년 화이트엔티나 천연가스 수출 2배로 확대
- 베네수엘라-브라질, 정유소 공동건설에 최종합정 서명
- 베네수엘라, '15년 원유생산량 425만b/d로 확대 계획
- 브라질, 고효율 가전제품에 감세혜택 연장 시행
- 브라질, 산림벌채 억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강조
- 사우디, Manifa 유전개발 프로젝트 '13년으로 연기
- 사우디아라코, 내년부터 원유공급 산정 기준 ASCI로 변경
- 카타르, 미국에서 중국으로 LNG 수출선 전환
- 이란, 가즈프롬과 Azar 유전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영국 Ofgem, 신재생에너지원의 전력망 연결 추가투자 촉구
- 프랑스, 후진국의 기후변화 대응 재원 마련 위한 금융거래세 제안
- EU, E3Car 전기자동차 개발프로젝트 투자예정
- 이집트, 나일삼각주 내 가스매장량 860억㎥ 증가 추정
- 나이지리아, 중국의 투자규모 \$60억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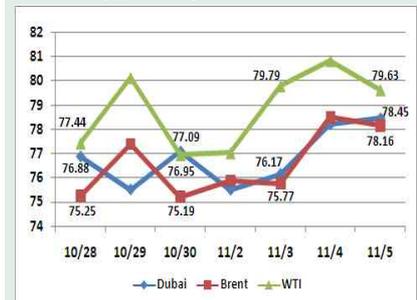
## ANALYSIS

-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 입장
- 유가연동 가스가격 결정방식의 문제

## REPORT

- '09년 동절기, 계절적 요인에 의한 유가 상승 효과 크지 않을 전망

Oil Prices (Spot, \$/bbl)





## ASIA, AMERICA & MIDDLE EAST

### □ 인도네시아, '20년까지 온실가스 '05년 대비 7% 감축목표 제시

- 인도네시아 환경부 하따(Hatta) 신임 장관은 인터뷰를 통해서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7%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음.
- 이는 개도국이 구체적인 수치목표를 설정한 사례로 이례적이며, 지구온난화 대책의 새로운 체제구축 협의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립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가 선진국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타협을 촉구할 목적이 있음.
- 동 장관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 개도국이 협력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국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더 높은 수치의 감축도 가능하다는 입장임.

(日本經濟新聞, 2009.10.30)

### □ 일본 환경성, '10년에 2조 엔 규모의 환경세 도입 추진

- 일본 환경성은 10월 30일 석유, 석탄 등을 사용했을 경우 CO<sub>2</sub> 배출량에 따라 과세하는 지구온난화대책세(환경세)를 '10년 세제개정안에 포함하였다고 밝혔음.
- 환경성 오자와 장관은 이날 내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세수입 규모는 2조 엔 정도로 고려하고 있으며, 빠르면 '10년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였음.
- 과세대상은 가솔린 및 경유, 석탄 등의 모든 화석연료에 적용하며, 연료별 CO<sub>2</sub> 배출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하지만, 특히 자동차용 연료는 환경세를 부과하는 국가에서도 높게 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석탄 등 다른 화석연료보다 세율을 높일 방침임.
- 환경세로 거둔 세수는 주택·설비의 에너지절약화,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친환경자동차 감세 등 지구온난화 대책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계획임.
- 환경성이 '08년에 검토한 환경세는 석유 및 석탄 등에 탄소 1톤당 2,400



엔을 과세하는 것으로 CO<sub>2</sub> 배출량에 비례하여 과세하는 방식이었으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액은 연간 3,600억 엔으로 세대당 연간 약 2천 엔 정도의 부담이 증가된다고 추정한 바 있음.

(Asahi.com, 2009.10.31)

## □ 일본, '08년 CO<sub>2</sub> 배출량 6.7% 감소

- 일본 경제산업성은 10월 30일 발표한 '08년 에너지 수급실적(속보치)에 따르면, '08년 일본의 CO<sub>2</sub> 배출량이 11.38억 톤으로 전년대비 6.7% 감소하였으며, '08년 최종 에너지소비도 전년대비 6.8% 감소된 약 3.8억kl 정도임.
  - 동 수치는 통계를 작성한 '65년 이래 최대의 감소 비율이며, 이는 경기 악화로 인한 생산 및 물류활동이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임.
  - 부문별 CO<sub>2</sub> 배출량은 산업부문 4.2억 톤으로 전년대비 10.4% 감소, 상업부문 2.32억 톤으로 전년대비 4% 감소, 가정부문 1.72억 톤으로 전년대비 4.6% 감소했음.
- 일본은 교토의정서에 의거하여 메탄 등을 포함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8~'12년까지 '90년 대비 6% 감축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08년 일본의 CO<sub>2</sub> 배출량은 교토의정서 기준년도인 '90년 대비 7.4% 증가한 상황임.
  - 부문별 CO<sub>2</sub> 배출량은 산업부문이 '90년 대비 13% 감소하였지만, 상업부문 '90년 대비 41.3% 증가, 가정부문 '90년 대비 34.7% 증가, 수송부문 '90년 대비 8.4% 증가했음.

(毎日新聞, 2009.10.30), (Fujisankei Business i, 2009.10.31)

## □ 일본 미츠이은행, 도쿄제철 CO<sub>2</sub> 감축사업에 융자 지원

- 일본 미츠이스미토모은행은 11월 2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약 투자를 실시하는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정부의 이자보조 제도를 활용하여, 도쿄제철의 CO<sub>2</sub> 감축 사업에 100억 엔을 융자 제공했다고 발표하였음.
  - 도쿄제철은 100억 엔의 자금으로 아이치현에 전기로 공장을 건설 중에



있음. 전기로는 코크스 등을 사용하는 고로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1/4 정도로 감축할 수 있음.

- 일본 환경성이 금년 7월에 마련한 상기 제도의 이자보조는 용자액의 최대 3%까지 가능하며, 동 지원을 받는 기업은 3년간 CO<sub>2</sub> 배출원단위 6%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6% 감축, 5년간 CO<sub>2</sub> 배출원단위 10%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 10% 감축 조건에 대한 협약이 요구됨.

(Fujisankei Business i, 2009.11.3)

## □ 홋카이도전력, 온천열 이용 국내 CO<sub>2</sub> 크레딧 획득

- 일본 홋카이도전력은 11월 2일 국내 CDM 사업 승인에 따라 367톤의 CO<sub>2</sub> 크레딧을 획득하였음. 이는 금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CO<sub>2</sub> 배출 감축량임.
  - 동사는 홋카이도에 위치한 아칸그랜드호텔의 증유보일러를 온천열을 이용하는 히프펌프로 교체하는 사업을 통해 '09년부터 '12년까지 연간 1,770톤의 CO<sub>2</sub> 감축이 전망됨.
- 국내 CDM 사업은 '08년 10월에 시작한 탄소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으로서 대기업이 자금 및 기술 등을 중소기업에 제공하여 배출감축을 실현하는 제도임.

(北海道電力, 2009.11.2)

## □ 일본, UN 기후변화 예비회담서 개도국 지원기금 통합 제안

- 일본 정부는 11월 2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고 있는 UN 기후변화 예비회담에서 개도국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해 현재 수십 개나 난립하는 기금을 정리·통합하여 '13년부터 3개 기금체제로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였음.
  - 동 정부가 제안한 3개 기금은 기후변화기금, 임시기금, 체제강화기금임. 기후변화기금은 에너지절약 기술 도입 및 홍수 등의 피해에 따른 대응사업을 지원하며, 세계은행이 운용하는 \$62억 규모의 기금 등을 재편하게 됨.
  - 임시기금은 빈민국이나 도서국의 지구온난화 대책을 지원하는 것이며, 체제강화기금은 개도국의 온실가스 측정 및 지구온난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인재 양성사업을 지원함.

- 이외에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는 개도국에 자금조달 방법 및 기술 등에 대해 조연을 하는 전문가그룹 설치도 제안하였음. 그러나 동 정부는 동 기금의 금액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음.

(Yomiuri新聞, 2009.11.3)

## □ 중국, '09년 GDP당 에너지소비 전년대비 5% 개선 전망

- 중국 국가발전위원회 지예롄화(解振華) 부주임은 10월 27일 제11차 5개년 계획('06~'10년) 실행 이래, 국내총생산(GDP) 1만 위안당 에너지소비가 13% 이상 감소했으며, 이에 목표대로 '06~'10년 GDP당 에너지소비를 20%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제11차 5개년 계획 실행 첫 해의 '06년 GDP당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며, '07년 4.04%, '08년에는 4.59%를 감소시켰음. 또한 '09년 상반기 GDP당 에너지소비는 3.35% 감소하였으며, 이에 GDP당 에너지소비의 감소폭은 총 13%에 달하고 있음.
- '09년 연간 GDP당 에너지소비는 전년대비 5%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10년은 4~5%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였음. 이에 따라 제11차 5개년 계획('06~'10년)의 20% 배출감축에 대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중국은 제11차 5개년 계획 기간 이미 6.2억 톤의 석탄을 절약하였으며, 15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였음. '10년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제철 6,000만 톤, 제강 4,000만 톤, 시멘트 1.4억 톤의 생산 시설과 5,400만kW 규모의 소규모 화력발전설비 등을 일부 폐쇄하였음.

(Searchina, 2009.10.29)

## □ 중국 CNPC, 신장(新疆) 유전개발에 2,000억 위안 투자

- 중국 CNPC(석유천연가스공사)는 10월 27일 '10~'15년까지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의 유전개발을 위해 2,000억 위안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동사는 동 지역의 유전개발 이외에 석유·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파이프



라인 건설 등에도 투자할 계획임.

- 중국 정부는 신장지역 원유매장량이 208억 톤, 천연가스는 10.8조m<sup>3</sup>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전체 육상석유 매장량의 30%, 천연가스 매장량의 34% 정도에 상당함.

(中國新聞網, 2009.10.29), (日本經濟新聞, 2009.10.30)

## □ 미국, '10년 에너지 및 수자원 예산안 발효

- 10월 28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으로 2010 회계연도 에너지 및 수자원 예산안이 정식 발효됨. 동 예산안은 총 \$335억 규모로 자동차, 건물 효율, 화석연료, 원자력부문 등에 투자될 예정임.
  - 자동차 기술개발부문에는 약 \$3.1억이 배정되어 고성능의 배터리와 국내 청정연료용 엔진 개발 및 연비개선 연구에 사용될 예정임.
  - 건물의 에너지효율 부문에는 \$2억 규모의 예산이 책정되어 건물 및 산업부문의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한 기술연구에 사용될 예정임.
  - CCS 기술 개발에 배정된 \$4억을 포함하여 화석연료의 배출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연구에 약 \$6.7억이 배정됨.
  - 원자력 개발 및 연구에는 차세대 원자력발전을 위한 \$1.7억의 예산을 포함하여 약 \$7.9억의 예산이 책정됨. 또한 군사 및 민간 원자력시설 처리에 \$64억이 배정되었고, 핵확산방지에 \$21억, 핵무기비축에 \$64억이 각각 배정됨.
- 이외에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경우 태양에너지 연구·개발 사업에 약 \$2.3억과 바이오연료 생산확대에 \$2.2억이 배정되었으며, 스마트그리드 기술 및 에너지저장 연구에 약 \$1.7억, 미육군 공병단의 홍수방지와 수자원 인프라 구축에 \$54억이 배정됨.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2009.10.29)

## □ 볼리비아, 우루과이 연결 가스관 건설사업에 \$30억 투자계획

- 볼리비아는 우루과이에 가스를 수출하기 위해 우루과이-파라과이-볼리비아



- (Urupabol)를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에 \$30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상기 3국은 동 건설사업의 추진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바, 사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임. 3국은 지난 5월 남미의 소규모 국가인 우루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 연합기구(Urupabol) 통합문제에 대해 협의한 바 있음.
  - 세계은행, 중남미 금융기구 안데스개발공사(CAF) 및 미주개발은행이 가스관 연구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동 건설사업에 이미 관심을 표명하였음.
  - 현재 볼리비아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만 천연가스를 수출하고 있지만 최근 브라질의 천연가스 수요 감소로 인해 다른 수출시장을 확보하려는 상황임. 따라서 동 가스관 건설을 통해 우루과이, 파라과이뿐만 아니라 칠레까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할 계획임.

(ViewWire, 2009.10.26)

#### □ 볼리비아, '10년 對아르헨티나 천연가스 수출 2배로 확대

- 볼리비아는 '10년 이후 對아르헨티나 천연가스 수출량을 현재 700만<sup>m</sup><sup>3</sup>/d에서 1,400만<sup>m</sup><sup>3</sup>/d로 확대할 계획임.
- 볼리비아 탄화수소부 꼬까(Coca) 장관은 볼리비아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 브라질의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 아르헨티나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힘.
- 볼리비아는 아르헨티나로의 천연가스 공급 증대를 위해 볼리비아 가스관 확장공사를 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 2,770만<sup>m</sup><sup>3</sup>/d까지 확대할 계획이나 목표달성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음.

(EFE, 2009.10.29)

#### □ 베네수엘라-브라질, 정유소 공동건설에 최종협정 서명

-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과 브라질 실바 대통령은 10월 30일 양국 간의 에너지협력강화를 위해 브라질 정유소 공동건설 및 베네수엘라 유전탐사사업 등에 관한 최종협정에 서명함.
- 브라질 정유소 공동건설에 관한 협정은 '05년부터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양측의 의견 불일치로 최종협정 서명이 연기되었음. 동 정유소는 브라질 북동부에 있는 페르남부코(Pernambuco)주의 아브레우에리마(Abreu e Lima)에 위치하며,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Petrobras가 공동으로 건설할 예정임. 동 기업의 참여지분은 Petrobras 60%, PDVSA 40%임.

- 아부레우에리마 정유소는 '11년 말 가동예정으로 투자규모는 \$100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유소가 가동되면 중질원유 23만b/d를 정제할 수 있고 양국이 50%씩 제공받을 예정임.
- 동 정유소의 원료는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중질유전에서 추출된 원유와 브라질의 원유를 이용할 계획임.
- 또한 PDVSA와 브라질 석유기업 Odebrecht Óleo e Gas는 베네수엘라 북서부 술리아(Zulia)주 마라카이호에 위치한 유전탐사사업을 추진 중임.

(EFE, 2009.10.30), (BBC Mundo, 2009.10.31)

## □ 베네수엘라, '15년 원유생산량 425만b/d로 확대계획

- 베네수엘라 석유·에너지부 장관 겸 국영 석유기업 PDVSA의 사장인 라미레스(Ramírez)는 원유생산량을 현재의 300만b/d에서 '15년에는 425만b/d, '21년에는 690만b/d로 증산할 계획으로 오리노코 중질유 유전개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11월 3일 제3차 세계중질유의회(EI III Congreso Mundial sobre Crudos Pesados)에서 발표함.
- 상기 원유생산량 증산을 위해 베네수엘라 남부에 위치한 오리노코 중질유전 개발을 확대할 예정임. 현재 오리노코 유전은 까라보보(Carabobo), 아야꾸초(Ayacucho), 후닌(Junín), 보야까(Boyacá) 등 31개 광구가 있으며, 21개 국가 및 27개 기업들이 탐사 및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오리노코 유전 개발사업으로는 PDVSA와 러시아 컨소시엄(Gazprom, Rosneft, Lukoil, TNK-BP, Surgutneftegaz)이 45만b/d를 목표로 추진하는 후닌 6 광구에서의 개발사업, 중국기업과 합작으로 40만b/d를 목표로 추진하는 후닌 4광구에서의 개발사업이 있음. 또한 PDVSA가 PetroVietnam과 20만b/d를 목표로 추진하는 후닌 2 광구에서의 개발



사업, 까라보보 및 후닌 1, 2, 3 광구에서 1,200만b/d 생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이 있음.

- 이외에도 오리노코 유전 내에 까브루따(Cabruta) 정유소와 호세(Jose)정유소를 건설하여 석유제품생산을 확대할 계획임.

(arropega.org, 2009.11.3)

## □ 브라질, 고효율 가전제품에 감세혜택 연장 시행

- 브라질 정부는 국내소비 진작과 중남미 경기회복을 위해 10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감세정책을 '10년 1월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함.
  - 동 정부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세금감면의 혜택을 유지하면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보다 큰 감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함.
  -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가전제품의 공산품세(Industrial Production Tax, IPI)를 보면, 냉장고는 15%에서 5%로, 세탁기는 20%에서 10%로, 가스레인지 4%에서 2%로 감면되었는데, 내년 1월까지 현행비율이 유지될 전망이다.
  - 이번에 연장 실시되는 감세정책은 A~E의 5가지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세제혜택을 차등 부여함. A로 분류되는 가전제품에는 세제가 완전 감면되며, E쪽으로 분류되는 가전제품일수록 세제감면 폭이 축소됨.
- 브라질 광업·에너지부는 고효율 가전제품 소비 증가로 연간 35GW의 전력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MercoPress, 2009.11.2)

## □ 브라질, 산림벌채 억제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노력 강조

- 브라질 정부는 연간 4%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5년 대비 20% 감축하기 위해, 산림벌채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degradation, REDD)뿐만 아니라,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다고 역설하였음.



- 브라질 정부는 아마존 산림벌채를 앞으로 '20년까지 80% 줄인다는 자발적 감축목표를 국가기후변화대책에 설정하여 추진 중이지만, 산림벌채 억제선진국들에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메커니즘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브라질은 산림벌채 억제 외 에너지·산업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도 주력할 계획이며,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연간 \$100억을 투자할 계획임.

(Point Carbon, 2009.10.26)

#### □ 사우디, Manifa 유전개발 프로젝트 '13년으로 연기

-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생산확대계획 일환으로 '11년 개발할 예정이었던 마니파(Manifa) 유전개발 프로젝트를 '13년으로 연기함. 사우디 아람코는 동 프로젝트의 진행상황과 관련해 해상시설로의 간선로를 건설하는 초기 작업은 거의 마무리가 되었으며, 현장 준비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사우디 아람코는 유전개발 및 에너지산업 전반의 비용 하락을 전망하고, 생산능력 90만b/d의 동 프로젝트의 개발시기를 당초 '11년에서 '13년으로 연기함.
  - 비용의 하락뿐만 아니라 세계 석유수요 감소도 동 유전개발 사업을 연기한 요인으로 작용함.
- 사우디아람코가 마니파 유전을 개발하는 것은 총 원유생산능력을 확대하기보다는 다른 유전에서 생산량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것이었음.
  - 동국은 원유생산능력을 1,500만b/d로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세계 석유수요의 부진으로 추가적인 생산능력 확보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판단함.
  - 사우디의 현재 원유 생산량은 약 800만b/d이며, 450만b/d의 잉여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ViewsWire, 2009.10.28)



## □ 사우디아람코, 내년부터 원유공급 산정 기준 ASCI로 변경

- 사우디 아람코는 내년부터 미국에 대한 원유공급 가격산정 지표로 WTI 지수 대신 아거스고유황원유지수(ASCI)를 사용할 것이라 밝힘.
  - 사우디 아람코는 '94년부터 북미 지역 거래 원유가격 산정 시 WTI 지수를 사용해 왔으나, 최근 미 경기침체와 달러가치의 하락 등의 요인으로 손실이 커지자 산정 기준을 바꾼 것으로 알려짐.
  - '08년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의 미국에 대한 원유 수출량은 1.5백만b/d로 전체 수출량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데 원유가격 산정방식의 변동은 수출 수입액에 큰 영향을 미침.
- ASCI는 미국 걸프 연안에서 생산되는 원유 가격을 바스켓으로 하여 산정되는 지수로서, WTI 지수 보다 세계 고유황 원유 가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음.
- 한편, 사우디아라비아가 ASCI로 가격결정 지수를 변경함에 따라, 고유황 원유 수출국인 브라질, 캐나다, 베네수엘라 및 멕시코의 가격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Reuters, 2009.10.28)

## □ 카타르, 미국에서 중국으로 LNG 수출선 전환

- 카타르는 총 LNG 수출량의 약 10%를 미국에서 중국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에너지수요가 많은 중국이 미국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임. 카타르가스는 당초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배정되어 있던 연간 500만 톤의 LNG의 수출대상지를 중국으로 변경하였음.
  - 동사는 '08년에 PetroChina에 연간 300만 톤, CNOOC에 200만 톤의 LNG를 판매하기로 계약한 바 있는데 이것이 미국으로의 수출물량 전환인지 분명하지 않았음.
  - 미국의 경우 국내 가스 공급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감소로 가스 수입량이 감소한 반면, 중국의 가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중국은 10월 셋째 주에 카타르로부터 21.6만 톤의 LNG를 수입하였는



데, 이는 CNOOC(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와 카타르 가스 간의 25년 공급계약 중 첫 거래였음.

- 중국에 대한 수출량은 카타르의 연간 LNG 생산량인 5,500만 톤의 약 10%에 해당함.
  - 카타르는 금년에 세계 최대규모인(연간 780만 톤의 LNG 생산) 3기의 LNG 플랜트를 가동하여 LNG 생산능력을 2,400만 톤 이상 확대하였음. 추가 1기의 동일 규모 플랜트는 연말까지 완공될 예정임.
  - '10년에는 2기의 플랜트가 추가 가동될 예정으로 '10년 9월에 카타르의 LNG 생산능력은 연간 7,7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ViewsWire, 2009.10.28)

#### □ 이란, 가즈프롬과 Azar 유전개발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이란 PEDCO(Petroleum Engineering and Development Company)와 러시아 가즈프롬은 이란 서부 아자르(Azar) 유전개발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 이란 NIOC(National Iranian Oil Company)의 승인을 받은 동 양해각서에 따라 가즈프롬은 3개월 내에 실행계획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임.
  - 아자르 유전의 매장량은 4억 배럴로 25년 동안 5만~6.5만b/d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됨.
- 노르웨이 Norsk Hydro와 러시아 Lukoil은 이란 남서부 Ilam주에 있는 아자르 유전의 Anaran 광구 공동탐사작업을 진행하여, '05년에 원유를 발견하였음. 양사는 아자르 유전의 매장량이 20억 배럴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Zawya.com, 2009.11.3)



## EUROPE & AFRICA

### □ 영국 Ofgem, 신재생에너지원의 전력망 연결 추가투자 촉구

- 영국의 에너지규제기관인 Ofgem은 전력망 운영업체들이 '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해 추가로 최대 10억 파운드를 투자해야 한다고 발표함.
- National Grid를 포함한 영국의 3대 송전기업은 향후 10년간 송전사업에 50억 파운드를 투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Ofgem은 동 기업들이 투자지출에 대한 현행 규제가 끝나는 '12년까지 풍력단지과 기타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인프라 투자를 보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이로 인해 Ofgem은 기업들이 향후 2년간 주요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 추가로 10억 파운드까지 투자하도록 할 계획임. 동 기관은 이와 같은 투자계획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풍력발전 및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확대에 필요하다고 주장.
- 투자금의 약 90%는 대부분의 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스코틀랜드에 책정될 예정임.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에서 송전을 담당하고 있는 Scottish & Southern는 내년부터 3개의 업그레이드 프로젝트에 2억 파운드를 투자할 수 있다고 발표함.

(Reuters, 2009.11.3)

### □ 프랑스, 후진국의 기후변화 대응 재원마련 위한 금융거래세 제안

- 프랑스의 환경부 장-루이 보를루 장관은 후진국의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힘. 이번 “정의-기후계획(Justice-Climate Plan)”은 토빈세 도입을 통한 재원마련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전함.
- 정책입안자들이 최근 몇 달간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를 검토해오고 있음.



- ※ 토빈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토빈이 제안하였으며, 국제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단기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함.
- 보를루 장관은 금융거래세로 연간 200억 유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후협약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코펜하겐 기후회담에서 선진국과 후진국 간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동 계획으로 마련된 자금은 수력발전댐과 태양광발전소, 풍력터빈 등과 같은 특정 프로그램 등에 지원
- 또한 오염이 심각한 선진국들은 후진국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합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는 후진국의 인구는 약 12억 명으로 경제발전이 뒤처지고 있는데다가 주요 국제회의에서 소외되는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함.
-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EU 회원국 정상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개도국과 후진국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합의했다고 전하면서, 개도국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20년부터 연간 1,000억 유로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 이 가운데 약 220억~500억 유로는 선진국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됨.

(Reuters, 2009.11.2)

## □ EU, E3Car 전기자동차 개발프로젝트 투자예정

- 자동차 개발 및 환경보호를 목표로 EU와 유럽 나노전자공학 추진 자문위원회(European Nanoelectronics Initiative Advisory Council, ENIAC)가 부분적으로 자금 지원하는 E3Car(Energy Efficient Electrical Car) 프로젝트는 '11년 말까지 유럽의 전기자동차의 연료연구에 주력할 예정임. E3Car는 최신 반도체부품을 사용하여 전기자동차의 효율을 높일 전망이며, 이로 인해 유럽이 동 기술 부문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 E3Car는 전기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모듈, 설계, 회로, 장치 및 나노일렉트로닉스 기술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둬. 독일 기업 Infineon Technologies AG를 선두로 33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체코,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를 포함한 유럽 12개국의 산업 및 연구기



관들로 구성됨.

- '11년 말까지 E3Car 프로젝트는 전기자동차의 전력소비에 대한 전자부품 연구를 목표로 하고 있음. 동 컨소시엄은 전력 공급 및 분배를 제어하는 능력을 갖춘 반도체부품과 전력모듈 연구에 집중할 예정임.
- 협력업체들은 전력변환, 전력관리, 전력분배 네트워크, 지능형 동력 모니터링 등 주요 4개 부문에 최신 반도체부품을 사용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함.
- 자동차의 효율이 1/3 이상(35%) 개선됨에 따라 E3Car 협력업체들은 전기자동차가 동일한 크기의 배터리를 사용하여 주행거리를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연구자들은 1회 충전 주행거리를 확대하고, 부품들을 통합하여 보다 가볍고, 작고 경제적으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또한 배터리 성능 개선을 위해 전력변환장치의 효율을 높일 계획임.
- 총 투자금은 약 4,400만 유로로 이 가운데 50%는 33개의 연구기관 및 업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EU, ENIAC,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등 11개 금융기관에서 조달하게 됨.
  - 동 프로젝트로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효율적인 자동차를 위한 기술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EU의 녹색기술 개발, 탄소배출 감축, 화석연료 소비감소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European Commission, 2009.11.4)

## □ 이집트, 나일삼각주 내 가스매장량 860억ft<sup>3</sup> 증가 추정

- UAE의 Dana Gas사는 이집트 나일삼각주 Faraskur-1 및 Marzouk-2 가스정에서 가스를 발견, 이로써 Dana Gas사가 '08~'09년 이집트에서 발견한 천연가스 매장량은 기존(약 3,300억ft<sup>3</sup>)치보다 860억ft<sup>3</sup>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 상기 2건의 가스발견은 Dana Gas사가 이집트 나일삼각주에서 행한 '08~'09년 시추활동 중 각각 8번째, 9번째 발견임.



- 웨스트 엘 만잘라 지역의 Faraskur-1 가스전에서 발견된 매장량만으로도 730억ft<sup>3</sup>로 추정됨. 동 가스정은 2,900m를 시추하였고 상부 Abu Madi층에서 21m 두께의 가스층과, Kafr El Sheikh와 하부 Abu Madi층에서 약간의 가스층이 발견됨. 상부 Abu Madi층의 시험생산에서 1,220만ft<sup>3</sup>/d의 가스가 생산됨.
- Marzouk-2 가스정 역시 웨스트 엘 만잘라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3,995m 깊이로 시추하여 3개의 가스층이 발견됨. 상부인 Messinian Abu Madi층에서는 6.7m 두께의 가스층이 발견, 가스와 콘덴세이트가 생산됨. Marzouk-2 가스정 Abu Madi층의 천연가스 매장량은 134억ft<sup>3</sup>으로 추정됨.
- Dana Gas사는 Faraskur-1 가스정 개발에 관한 두 가지 안을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 하나는 나일의 다른 쪽인 북서부 엘 와스타니 전의 시설로 연계하는 방안과 또 다른 하나는 남동부 살마-톨립 가스플랜트로 연계하는 방안임. 한편, Marzouk 가스정은 당분간은 방치했다가 개발허가권을 획득한 이후 개발할 계획임.

(www.danagas.ae, 2009.10.13), (Arab Oil & Gas, 2009.11.1)

## □ 나이지리아, 중국의 투자규모 \$60억으로 증가

- 나이지리아 무역협회(NANTS)에 따르면 중국의 對나이지리아 외국인직접투자는 '03년 \$30억에서 '08년 \$60억으로 배가되었는데, 이 중 석유·가스부분이 75%에 달함.
- NANTS는 양국 간의 무역이 두 가지 원칙에 근간한 것으로, 첫째 나이지리아의 인프라 부족을 중국이 공급해 주고, 둘째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제조부문에 필요로 하는 원유 및 광물을 나이지리아가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 증가는 중국 입장에서는 자원, 공간 및 국제문제에 대한 이득을 취할 것이며, 아프리카 입장에서는 향상된 교역 조건, 자원감소, 비간섭주의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모델에 대한 요구가 충족될 것으로 전망됨.

(ViewsWire, 2009.10.29)



## 1. 중국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보호무역주의적 입장

### □ 개요

- 온실가스 다배출국인 중국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전력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중 확대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중국 정부가 외국 제조기업에 대하여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 세부 내용

- 중국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실행은 가시적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베이징과 상하이 등지의 건물지붕에는 태양열 온수기의 보급이 증가되고 있으며, 내몽고 초원지역에는 대형 풍력터빈들이 빠르게 건설되고 있음.
  - 향후 20년 동안 석탄소비가 연간 3% 이상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전력기업들에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장려하고 있음.
- 중국은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미 세계 수력발전 부문을 주도하고 있고, 풍력 및 태양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목표를 세움.
  - '07년 중국 정부는 '08년 대규모 발전기업들의 발전능력 비중 가운데 최소 3%를 신재생에너지원(수력발전 제외)으로 하고 '20년 8%까지 확대하도록 지시한 바 있음. China Greentech Initiative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환경관련 중국 내 기술시장은 '13년까지 \$1조 규모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전력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발전능력이 '20년까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풍력 및 태양발전량은 정부의 지원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동 정부는 지난 3월 태양광 패널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50%를 보조하고, 외곽 지역의 경우 70%를 보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구 대국이자 최대 오염배출국가인 중국은 그린에너



지 정책을 통해 외국의 풍력 및 태양에너지 기업에 시장개방을 약속함. 그러나 중국 정부가 대규모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에 주력하고 있는 바, 외국기업의 진출이 쉽지만은 않음.

- 지난 9월 미국의 태양전지모듈 생산기업 퍼트스 솔라(First Solar)는 내몽고 오르도스 지역 인근에 맨해튼보다 큰 태양광발전단지의 건설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동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의 태양에너지 사업으로 중국 300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됨. 이를 위해 퍼스트 솔라는 동 지역에 태양모듈 제조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함.
- 퍼스트 솔라는 동 프로젝트가 태양발전 및 저탄소 미래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하고 장기적인 시장 창출을 위해 중국이 채택하고 있는 진보적인 에너지정책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평가함.
- 그러나 중국에서 흔히 그렇듯이 퍼스트솔라와 같은 성공적 시장진출이 기타 외국 기업들에게는 쉽지만은 않음. 중국의 정책입안자들은 대규모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현재 중국에는 100개 이상의 풍력터빈 제조기업과 400여개의 태양전지모듈 제조기업이 있으며, 세계 최대 태양전지모듈 메이커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08년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전지모듈의 95% 이상은 수출되었으며, 이는 국내 수요를 훨씬 초과하는 양으로 외국 기업들이 중국 본토 시장으로의 접근이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님. 주중 유럽연합상공회의소(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EUCCC)는 중국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풍력터빈 제조기업에 대해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음.
- 국제적인 풍력터빈 기업들의 경쟁을 금지하는 입찰요건의 사용은 엄격한 국산자재 사용요건(local content requirement)을 따르기 위해 중국 시장에 집중 투자해온 기업들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음. 중국이 정부 조달에 대한 보호무역주의를 제한하는 WTO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정부들은 다른 대응방법이 없음.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 6월 국내에서 필수기술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를 제



외하고 중국산 장비를 구매해야만 한다고 발표함.

- 인도 풍력터빈 제조기업인 수즐론 에너지(Suzlon Energy)의 수아레스 중국 지사장은 지역수준의 프로젝트에서는 성공적으로 입찰해 왔지만, 자사를 포함한 모든 외국기업들은 간수, 허베이, 내몽고 등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수준의 풍력기반 사업 진입이 차단되었다고 전함. 중국 제조기업들이 외국기업들보다 저렴한 가격에 풍력터빈을 공급할 수 있지만 신뢰성 및 전체 실적 면에서 외국 기업에 필적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한편 중국정부는 풍력기반 개발, 국내 산업 증진, 국내 인력 확보 등을 바라고 있으며, 외국기업의 제품이 국내산보다 훨씬 고가라고 주장하고 있음.
  - 수아레스 지사장은 만약 터빈가격이 유일한 선정기준이라면 문제없지만 리스크와 기계의 성능, 관세 등 기타 모든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외국 제조기업들은 중국기업들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함. 또한 자사가 터빈 생산을 위해 국산자재(현지인 고용) 70%를 사용해야 하는 중국의 요구조건을 따르고 있다고 덧붙임.
  - 설상가상으로 해외에서 중국 태양광패널 제조업체 제품의 덤핑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음. 비중국계 태양전지판 제조기업들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과 미국시장에서 경쟁업체보다 30% 싸게 파는 데 항의하고 있음. 이러한 논란은 중국과 서방국가 간 무역마찰을 초래할 수 있음. 올해 초 미국 세관은 과거 면세대상이었던 수입 태양광 패널에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침을 결정함.
- 중국 상무부는 모든 외국 및 국내기업들에 평등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전하면서 유럽상공회의소가 제기한 보호무역주의 주장을 부인하였음.

(TIME, 2009.11.2)



## 2. 유가연동 가스가격 결정방식의 문제

### □ 개요

- 최근 유가는 회복된 반면 가스가격이 약세에 머물러 있어, 가스공급자와 수요자는 모두 가스 가격의 유가연동 결정방식에서 이탈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함.

### □ 세부 내용

- 최근 유가는 회복된 반면 가스가격이 약세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가스 생산자들로 하여금 가격방식의 전환에 대한 논의 계기로 작용되고 있음. 이러한 유가와 가스가격이 벌어진 상황에서 유가연동 방식의 가스가격 결정은 가스대금을 지불하는 수요자에게 난관으로 작용함.
  - 이탈리아 Eni와 독일 E.On 같은 일부 기업은 유가연동 방식이 변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러시아 가즈프롬이나 알제리 Sonatrach과 같은 주요 가스수출기업은 석유제품 가격연동 방식을 고집해 오고 있음.
  - 최초 '70년대에 가스가격을 석유제품과 연동시키려 한 근거는 주요 발전 및 산업 수요자들이 가스와 연료유를 서로 전환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상황임. 현재 발전용 연료로서 가스와 경쟁하는 것은 석탄과 원자력임.
- 유가연동 가격방식에 불만인 수요자들은 현재 가스시장의 수급 불균형에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음. 많은 LNG 프로젝트의 진행으로 인한 공급은 과잉인 반면 경기침체로 인해 가스수요는 침체되었기 때문임.
  - 이와 같은 상황은 영국 NBP(National Balancing Point) 등의 지역 가스 거래허브에서의 유동성 증가를 유발했으며, 유가연동 가격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는 유인을 강화시킴.
  - '06~'08년과 같이 가스의 공급이 풍부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가연동은 유가가 \$60~70/bbl일지라도 관찮을 것이지만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에서는 지지할 수 없다고 한 전문가가 지적함.



- 특히 유럽에서는 수요자가 가스프롬과 같은 공급자로부터의 유가연동 방식 장기계약물량을 감축하고 저렴한 LNG 현물 사용을 확대하고 있음.
- 일본에서 유틸리티회사들이 새로운 가격방식으로 신규 계약협상을 체결함과 동시에,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가격검토 및 가격재결정조항 논의가 시작됨.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아직은 시장기반 가격방식으로 전환할 준비는 되어있지 않은데, 이는 이용 가능한 가격기준에 대한 우려 때문임.
- 한 가지 아이디어는 모든 계약에서 유가연동 가격방식을 전면교체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미국 Henry Hub와 영국 NBP 가스가격으로 연동시켜가는 것임.
- NBP는 유동성에 있어서 유럽의 가장 성공적인 가스거래허브이지만 이곳에서조차 유동성과 가격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었는데, 이는 대량의 LNG 현물 유입으로 인한 왜곡현상 때문이었음.
- Henry Hub 가격은 동일한 유동성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지라도 지역적인 가격 불안정 요인이 있는데, 이는 미국의 비전통적인 가스자원의 출현이 Henry Hub 가격에 압력을 가하고 있기 때문임.
- 대부분의 판매자들은 단 한 가지의 가격 결정방식이 북미, 유럽 및 아시아 3개 지역 가스시장에 모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
- 각각의 시장은 계절적 요인, 유가수준 및 생산자의 마케팅전략 등에 따른 서로 다른 가격방식을 선호함.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2009.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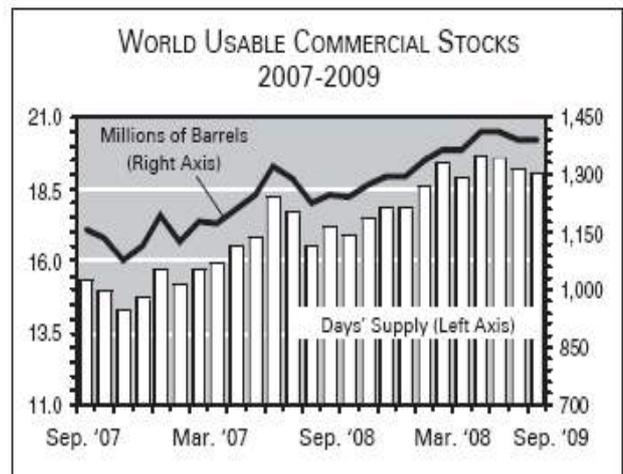
'09년 동절기, 계절적 요인에 의한 유가상승 효과 크지 않을 전망

□ 개요

- 일반적으로 동절기를 앞둔 10월경 유가 전망 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변수로 계절적 요인이 거론되어 왔음. 그러나 금년의 경우, 이러한 계절적 요인은 유가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의 유가 상승세는 계절적 요인에 의한 영향보다 달러가치 하락세 지속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 올해 계절적 수요 증가에 따른 유가 변동 가능성과 최근 WTI 기준 원유 가격산정 방식을 둘러싼 세계추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세부 내용

- 동절기 유가변동의 변수로 고려돼 온 계절적 요인은 크게 동절기 온도가 얼마나 내려갈 것인가, 계절 폭풍 혹은 열대성 폭풍이 발생할 것인가, 겨울을 보내기 위한 북반구지역의 난방유 비축이 충분한가 등의 여부임.
- 하지만 올해 동절기 계절적 요인에 의한 유가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원인은 아래와 같음.
  - 첫째, 올해 동절기 날씨가 매우 춥더라도 현재의 높은 재고량을 다소 줄이는 영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둘째, 재고의 감소로 유가가 상승세를 나타낸다면, 정유사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잉여정제능력을 활용해 금새라도 난방유 생산을 증대시킬 것이며, 이는 가격상승세를 제한할 것임.
  - 셋째, 만일 특정 지역의 날씨가 극심하게 추워짐에 따라 그 지역의 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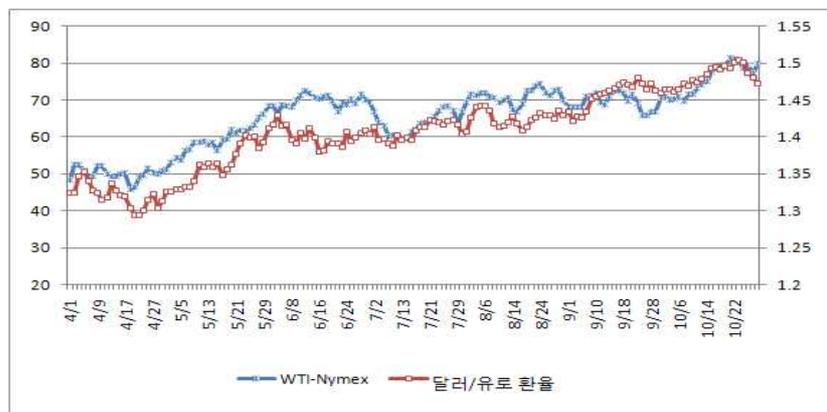
방유 가격이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는 있으나, 다른 지역의 풍부한 난방유 재고가 유입되어 가격격차를 해소할 것이기 때문이다.

- 재고량의 재 증가는 계절적 수요에 의한 유가 변동유인을 감소시킴. 지난 7개월간 OECD 석유 재고는 완만한 증가세 혹은 감소세를 반복했으나, 9월 석유재고는 다시 크게 증가함. 북반구 지역 국가의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유 축적이 큰 원인으로 작용함.
  - 9월 OECD의 산업용 석유 재고량은 전월대비 29백만 배럴이 증가하였으며, 비축일수는 60.4일로 늘어남.
  - 올 OECD의 석유 재고일 수는 3월 61.8일로 최고치를 기록,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내 8월 60.2일까지 감소한 바 있음.
  - 비록 북대서양 국가들의 계절적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기는 하나 석유 대소비국인 중국에서는 이러한 추세는 관찰되지 않고 있음.
- 일반적으로 계절적 수요 변동은 OECD 국가에 의해 좌우되며, 비OECD 국가의 경우 과거의 패턴과 수준의 수요를 유지함.
  - 개발 초기단계 국가들의 경우 소비자들은 날씨가 추워질 경우, 적극적으로 실내를 따뜻하게 하려 하지 않으며, 전통적 연료 사용으로 난방유 소비를 대체함.
  - 따라서 동절기 날씨가 추워지더라도 비OECD 국가의 석유수요 변동 폭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 올해 여름과 가을의 경우에도 허리케인 등의 계절적 요인들이 유가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바 있음.
  - 올해의 경우 대서양 지역의 허리케인으로 인한 석유 및 가스의 공급곤란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석유 공급차질을 우려하고 생산감소를 예측한 생산자들이 올해 생산량을 상향 조정하고 있음.
- 10월 이후에도 계절적 요인보다 달러가치의 변동이 유가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최근 국제 석유시장의 유가변동과 달러가치 변동의 상관관계는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나타냄.



- 달러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은 최근 유가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 국제 석유거래 결제 통화에서 달러의 퇴출 조짐이 발생함.
- 세계 석유수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주 유가 산정 기준을 내년부터 기존 서부텍사스중질유(WTI)지수 대신 아거스고유 황원유지수(ASCI)를 활용하기로 결정함.
- 이러한 달러화 퇴출 조짐은 달러가치의 하락으로 최근 WTI 가격이 수급 상황에 따른 세계 원유시장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과 WTI의 심한 가격변동은 투기자본의 유입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우려가 작용함.
- 그간 WTI 적용으로 최대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에 큰 손실을 안겨준 것으로 분석됨.

최근 유가 및 달러/유로 환율 변동 추이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제로금리 유지 및 경기부양책 지속 결정은 달러가치의 하락세가 쉽사리 반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싣고 있음.
- 그러나 최근 사우디아람코의 유가 산정방식 변경 결정이 주변 중동 산유국에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지 귀추가 주목됨.

(Oil Market Intelligence, 2009.10)